

##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

1/30 월요일

### 아침의 누림

시 68:18

18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민 10:35

35 궤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흠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

행 1:9

9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 보이지 않게 하였다.

행 2:24, 27

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7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왕상 8:29-30

29 이 집 곧 주님께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곳을 향하여 밤낮으로 눈을 뜨시어 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 이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늘들에 있는 주님의 거처에서 들으시며, 들으시고 나서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

에베소서 4 장 8 절부터 10 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시어 모든 것을 총만 하게 하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가신 분이심을 본다. 8 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시편 68 편 18 절에서 인용한 ‘높은 곳’은 시온산(시 68:15-16)을 가리키며,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니(왕상 8:30) 셋째 하늘을 상징한다. 시편 68 편은 언약궤가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궤 안에서 시온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편 68 편 1 절은 민수기 10 장 35 절의 인용이다. 이것은 시편 68 편의 배경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시온산 꼭대기로 당당하게 올라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를 얻으시고 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묘사한다. (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20-22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셋째 하늘로 여행하셨다. 바로 이러한 우주적인 여행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몸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바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어떻게 다소의 사울처럼 죄가 있고 마귀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은사가 될 수 있었는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여행 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약 삼십 년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고 삼 일 동안 음부를 둘러보셨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날에 음부에서 나오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사십 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사십 일의 끝에서 그분은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만일 우리에게 시편 68 편이 없이 에베소서 4 장만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을 때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하늘들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이 포로들을 아버지께 바치셨고, 아버지는 이 포로들을 그리스도께 돌려주셨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이 모든 포로를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다. 이러한 은사들 중 하나가 다소의 사울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신 방법이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여행하심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을 모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한때 우리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여행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얻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강탈하고 자신의 죽음의 세력 아래 붙잡아 두었던 사탄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포로들이다.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과 아버지께 이 포로들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어떠한 승리에 찬 축하 행진이었겠는가!

그분께 사로잡힌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뵈지 않았지만, 그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행렬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셨다. 아버지는 매우 감상하시면서 우리를 보신 후에 아들에게 은사들로 돌려주셨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여행을 통하여 몸에게 은사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8 장, 356-3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8, 41 장

### 1/31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4:8-10

8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9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

#### 눅 4:18

18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 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 고후 2:14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 아 3:6

6 “물약과 유향, 상인의 온갖 향료로 향기 날리며 연기 기동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

#### 아 4:1

1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오, 아름다워라! 너울 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 떼 같도오.

---

에베소서 4 장 8 절에서 ‘사로잡힌 이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 즉 사탄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출하셔서 자신에게 이끄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탄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확대역 신약성경(The Amplified New Testament)>은 ‘그분은 ...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를 ‘그분께서 ...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을 이끌고 가셨다가’로 번역한다. ‘패배한 원수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죄인들인 우리를 가리키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지금 그리스도는 그분께 패배한 원수들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계시며,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움직이실 때 그들을 개선 행진 가운데 있는 포로들로 이끌고 계신다.(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2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4 장 8 절에서 ‘은사들’이란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한 능력이나 역량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1 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 곧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전파자들, 목자들 및 교사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인들을 사탄과 죽음에서 구출하셨다. 그 후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구출된 죄인들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이와 같은 은사들로 만드셨고, 몸을 건축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분의 몸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 곧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었다. 올라가신 후에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면서 여행하시고, 은혜로운 방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행하고 계신다. 즉, 그분은 아직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여행은 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신다. 하루 중에도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이끌려 간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 ...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가, 땅에 계시는가? 그분께서 땅에 계신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면, 즉시 땅에 계신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계신다. 에베소서 4 장 9 절과 10 절에 따르면,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지만 여러분은 충만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에 의해서 우리를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내려오시고 올라가실수록 우리는 더욱 더 은사들이 된다. ...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때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시며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신다. 그리스도의 여행의 결과로 그들은 유용한 은사들이 된다.

우리가 몸을 위한 은사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굴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몸을 위한 은사로 만드실 근거와 입지를 가지실 수 없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께 패배당했습니다. 저는 당신께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패배당하고, 사로잡히고, 얻어지고, 점령당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세우실 입지를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 올라가시고 내려오실수록, 우리를 더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실수록,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시어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실 것이다.(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22-223, 2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 2/1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 요 17:23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행 20:20

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 고전 3:6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 골 4:17

17 그리고 아킵보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 주십시오.

#### 딤후 1:12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 딤후 4:5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

에베소서 4 장 11 절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몸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 이 절에 있는 은사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오직 한 사역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사역이다(고후 4:1, 딤후 1:12).

문법적인 구조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그 사역의 일’은 동격이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사역의 일은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11 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의 사역의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일은 주로 은사 있는 이들만 감당하는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다. 인도하는 사도들을 포함한 은사 있는 이들과,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31-23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은사 있는 이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다. 은사 있는 이들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사역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성한 분배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생명 공급을 주는 생명나무에 따라 성도들을 보양하여 생명이 자라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창 2:9, 고전 3:2, 6). 은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사도들은 교회들을 방문하고(행 15:36, 40-41, 20:20, 31),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골 4:16, 고전 1:2), 그들의 동역자들을 어떤 곳에 머물도록 안내하여 그곳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딤후 1:3-4, 3:15, 딤후 1:5)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신언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람들 안으로 말해 내는 것을 가르치고, 집회에서 말함으로 본을 세우며, 매일 아침 부흥되고 매일 승리함으로 신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움으로써(행 13:1, 고전 14:31, 잠 4:18)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 전파의 영 안에서 불타도록 성도들을 분발시키고,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경륜적인 영의 능력으로 장비되도록 돕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세움으로써(딤후 4:5)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목자들 및 교사들은 목양하고, 곧 어린 성도들을 먹이며 보양하고, 자라나는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행 11:25-26, 13:1)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결과로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이다

(엡 4:13, 비교 요 17:23). 이러한 온전하게 함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게 한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이다(엡 4:14).

온전하게 되는 길은 생명이 자라고 기능이 노련하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 장 12 절에서 '온전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하게, 장비되게, 갖추어지게'라는 의미도 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를 완전하게 하고, 장비되게 하며,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다. 오직 생명이 성장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전에는 완전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 성도들은 신성한 생명이 자라도록 먹어야 하고, 합당한 기술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32-2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도들을 온전케 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1-3 장

## 2/2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벧전 5:2-3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 딤후 3:1-2

1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합니다.

2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

#### 딤후 3:7

7 또한 감독은 반드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 21:15-17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마 28:19-20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

모든 성도들이 건축하는 지체들이어야  
한다. ... 먼저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건축한다는 뜻이다. 그런 후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건축하는 지체들이 된다.

에베소서 4 장 16 절의 ‘각 마디’는 11 절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풍성한 공급’은 특별한 공급, 곧  
그리스도의 공급인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각  
지체’라는 표현은 몸의 각 지체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게는 몸의 성장을  
위해 기능을 발휘하는 각자의 분량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된다.(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0 장, 234-23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목양과 가르침은 승천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들이다.

네 종류의 은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셋인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은  
목양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 장  
15 절부터 17 절까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에 의해 확증된다. ... 목양이 없이는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요한복음 21 장 15 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주님, ...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다. ... 주님은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고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실지 인격인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고  
말했다(벧전 2:25). 그런 다음에 베드로전서 5 장  
1 절과 2 절에서 장로들에게 그들의 의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 우리의  
이해와 신학과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할 때는  
하나님을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게 되고,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요 기능으로  
목양하는 것에 더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사도들에게,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장로들(감독들)을 선택하여  
세워서 그분의 양 떼를 돌보는 그분의 목양을  
수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딤후 3:1-7,  
5:17 상). 교회의 머리께서 은사 있는 많은  
사람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목양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몸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된다.  
몸은 우주적이며 추상적이지만, 교회들은 어떤  
곳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이다. ... 각 지방에 있는  
목자들은 훨씬 더 실질적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목자들인 사도들에게 각  
지방에 몇몇 장로들을 임명하여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교회들 안의 장로들의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목양하는 것이다(벧전 5:2 상).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과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서신서들에서 가르친  
것에 따라 목양을 강화하고 목양의 목표를  
이루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딤후 3:2 하,  
5:17 하). 디모데전서 3 장 2 절은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습관임을 의미한다. 어떤  
장로들은 조용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 특별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헛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148, 150, 153-1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 2/3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 엡 1:22, 10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롬 8:6, 10-11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에베소서 4 장 15 절에 언급된 ‘참된 것을 붙잡고’는 14 절에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대조된다. 사람들의 속임수 안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다가 오류의 체계에 빠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 이 절의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한다. 진리의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은 그분의 경륜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한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이다. 이 세 가지가 참된 것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러한 참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것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거나 분리시키는 모든

가르침과 말을 거절해야 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2 장, 2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것이다 (엡 4:15).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 반드시 머리 아래 있는 몸 안의 지체들의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옷 입는 방식이나 머리를 빗는 방식이나 물건을 사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과 같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해야 하고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자랄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속부분,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고 자라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일에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또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공급 받음으로써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전달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기능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란다. 그런 다음에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머리에게서 나온 것을 갖게 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2 장, 29 쪽)

지체들인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엡 4:15).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실재를 붙잡는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것이다. 이 절에 있는 ‘머리이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머리이신 분 아래 있는 몸 안의 지체로서 자라는 것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도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을 산출할 수 있다. 에베소서 4 장 16 절은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 각 사람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몸의 하나와 생활과 봉사, 2 장, 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5 장; 몸의 하나와 생활과 봉사, 2 장

#### 2/4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사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요일 4:7, 11, 16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딤후 1:14).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으로 그분을 누린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건축된다.(엡 3:17 각주 3)

(에베소서 4 장 15 절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몸의 지체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몸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져오지 않는다.(엡 4:15 각주 1)

### 오늘의 읽을 말씀

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들 및 교사들과 같은 마디들이다. 다른 이들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다. 이 두 범주의 믿는 이들을 통해 몸은 성장하며, 이 성장은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데 이르게 한다. 우리는 마디가 아닐지라도 분명 몸의 일부이다. ... 우리는 마디들만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몸의 모든 부분 또한 쓸모가 있다. ...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도 자신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마디나 부분이라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 마디들의 공급과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통해 온몸은 자라게 되며, 이러한 몸의 성장은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안에는 유기적인 기능들이 있다(롬 12:4-8). 우리는 이 유기적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어야 한다. ...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대신에 기계적으로 일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공급을 해 주는 마디로서, 또는 움직이는 부분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몸 전체가 기능을 발휘할 때 몸은 스스로 자라게 되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몸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정을 거쳐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 3 장, 58-59 쪽)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직접적인 건축은 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몸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로 신언함으로써, 즉 주님을 위하여 말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건축된다. 우리 모두는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분량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나에게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귓속의 가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의 새끼손가락은 참으로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나를 평안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도 자신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주로 신언함으로써, 즉 주님을 위하여 말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한다.

나는 온 땅에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 내며,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해 넣는 집회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럴 때 한 유기체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한 이 유기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직접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신성한 요소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러한 유기적인 건축의 실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책에서 교통한 것을 실행해야

한다.(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더 전진된 빛,  
4 장, 74-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더 전진된 빛, 2-4 장

**찬송: 914 (英) 교회 위해 봉사함이 (中:658)**

1 교회 위해 봉사함이 하나님의 정한 뜻  
사도들이 행한 바요 사역의 한 길일세

**(후렴)**

우리들의 모든 봉사 교회 위한 것일세  
이는 주가 기뻐하는 온전하신 뜻일세.

2 교회가 주 그릇 됨이 하나님 계획이니  
우리 모든 봉사로서 주의 집을 건축해

3 은사 받은 모든 사람 주의 몸을 위하여  
주의 충만 이루도록 교회 건축해야 해

4 모든 은사 모든 기능 주의 몸을 위하여  
모든 사역 성령 능력 주의 몸을 위하여

5 복음 전파 사역 목양 모두 몸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스림도 모두 몸을 위하여

6 모든 사역 교회 위해 사역 자체 안 위해  
등잔대는 교회일 뿐 어떤 사역 아니네

7 이는 우릴 하나 안에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동기 시험하여 우리 목적 바꾸네

8 일에서나 분열에서 주님 우릴 구원해  
교회 위해 수고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2/5 주일**

**아침의 누림**

**요일 4:7-19**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 1. 30 ~ 2023. 2. 5**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더 전진된 빛, 2-4장*